



신안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독립유공자 포상

신안군은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참여자 8명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서훈(건국포장 2명·대통령표창 6명)을 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새롭게 지정된 독립유공자는 압해읍 매화도 소작쟁의 참여자 2명, 자은도 소작쟁의 참여자 4명, 지도읍 소작쟁의 참여자 2명이다. 신안군 6개 섬에서 발발한 소작쟁의 운동은 1920년대 친일지주에 맞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한 항일농민운동이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압해도 소작쟁의가 알려졌으며 전국적인 대규모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계기가 된 역사적인 항일농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소작쟁의 운동을 재조명하고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해 2020년 (사)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천우)를 설립했으며 학술세미나·신안군항일농민운동 총서 발간, 자료수집 및 서훈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 **신안=홍일갑 기자**



전남대병원, 안도걸 전 차관 초청 특별강연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지난달 27일 오전 의생명 연구지원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초청해 '격변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 명사초청 강연을 했다. (사진)

1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교육수련실(실장 주재근 대장항문외과 교수) 주최로 열린 이번 특별 강연에는 전남대병원 임직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영근 병원장이 직접 안도걸 전 차관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다.

안 전 차관은 화순 출생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거쳤으며 현재 광주시 재정경제자문역, 전남대 연구석좌교수, 서울대 ESG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 전 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격변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재정 정책의 대응에 대한 설명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노병하 기자**



동부경찰, 경미범죄 소년범 선도심사위 개최

광주 동부경찰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8일 서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 외부 위원과 함께 '제2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훈방·즉결심판 청구·생활지원 결정 등 실질적인 제도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청소년 관련 선도·의료·법률·생활지원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미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10명에 대해 비행경력, 재범 위험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결심판 청구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 등을 결정했다.

동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심리지원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센터장 나치형)는 천주의 성 요한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재난 심리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지원 자문, 재난심리상담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활동 등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상처 치유부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충격 완화 등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 직·간접경험자, 유가족, 목격자 및 구호활동에 참여한 사람 중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062-570-7725)로 문의하면 된다. **강주비 기자**



나주시, 금연지도원 위촉장 수여·직무교육

나주시 보건소는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금연 홍보·교육 등을 지원한다. 금연지도원은 2개 조로 편성돼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교, PC방, 공원 등 간접흡연 취약시설을 비롯해 금연구역 5906곳에 대한 흡연 행위 단속에 나선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공이용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아파트)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나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절대보호구역, 아동복지시설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10m 이내,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가스충전소·주유소 등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나주=박승엽 기자**



동부소방, 안전관리대상 합동훈련 진행

광주 동부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로머스파크에서 소방서 주관 합동소방훈련을 지난달 28일 추진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현장대응능력 제고 및 관계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과 화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저감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40여명 인원과 소방펌프차, 고가차 등 총 7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훈련 중점사항으로는 △즉흥적인 훈련 실시 △차량 부서 및 인근 수리확인 △화재 등 재난 상황시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대응 활동 △소방서·자위소방대 합동 화재진압훈련 △연결수관 점검 및 자체 소방시설 활용 등이다.

이중주 119재난대응단장은 "지속적인 훈련과 현장대응기법을 공유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현 기자**

곽도근 6대 나주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장 취임



나주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는 봉황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4·5대 이재섭 이임회장, 6대 곽도근(사진) 신임 회장에 대한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에 홍영섭 나주시의원, 이동술 봉황면장, 손귀동 노인회장, 양채식 이장단장, 홍정석 주민자치위원장, 박득초 부녀회장, 최태산 청년회장, 이국섭 자율방범대장, 곽영길 농민회장, 안길재 농촌지도자회장, 송정훈 봉황농협 조합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곽도근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장은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는 봉황면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봉황면이 발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승엽 기자**



광주역다사로움 분리수거 캠페인

주택관리공단 광주역다사로움은 최근 단지 내 공동생활질서를 위한 분리수거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관리소직원과 입주주민들이 함께 쓰레기 줍기, 재활용 방법 등을 홍보했다. 주택관리공단 광주역다사로움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입주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역다사로움 제공**



수완아름 휴먼시아2단지 '겨울방학 행복한밤상'

나주수완아름마을 휴먼시아2단지(센터장 강성욱)는 일단지 내 초등생을 대상으로 점심밥 한끼를 선물하는 '동계 나 행복한 밤상'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지주택공사와 아이들과미래재단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방학기간 동안 20 가정을 선정, 점심도시락을 제공하고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닐봉투 대신 제공된 보냉백으로 도시락 받기, 다먹은 도시락 통 깨끗이 씻어 인종상 올리기, 도시락통을 재활용한 화분 만들기 등 자원순환교육도 병행했다. **휴먼시아2단지 제공**



나주용산1단지, 문화예술공연 관람

주택관리공단 주거행복지원센터 나주용산1단지(센터장 서윤영)는 최근 나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열린 나주필하모니 정기연주회 공연을 관람하며 입주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과 정서 함양에 앞장섰다. **나주용산1단지 제공**

인사

순천시 ◇5급 승진 △매곡동장 윤선욱 △조곡동장 송명선 △덕연동장 남기윤 △도사동장 김서하 △왕조2동장 방수진 △승주읍장 문동준 △주암면장 정흥찬 △질병관리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기후에너지과장 박영란 △건설과장 임동호 △하수도과장 서준원 △낙안면장 정종석.